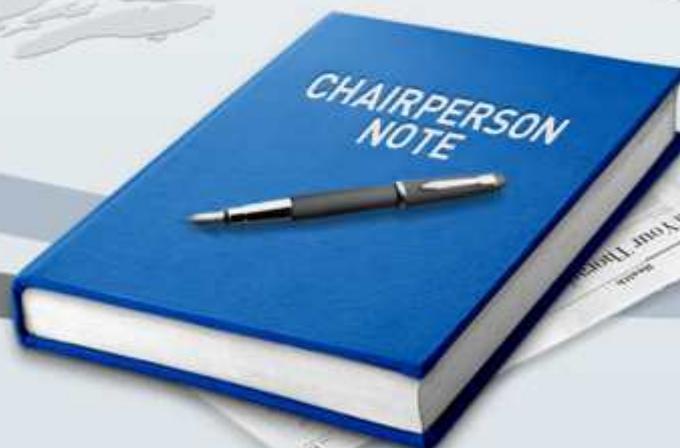


#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중국 경기 낙관론 확산
  - 8월 신규취업자수, 11개월 만에 최대
- 경영 노트
  - 휴먼터치를 통한 인사관리
- 사회 트렌드
  - 은퇴자 빛내 치킨집, 경제 부담으로
  - 아이비리그의 굴욕
- 저널 브리프
  - 미래에 사라질 7가지
- 洗心錄
  -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중국 경기 낙관론 확산

- 중국은 대외무역, 산업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경기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
  - 대외무역 : 중국의 수출 규모는 8월 1,90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8월 무역수지도 지난 7월보다 107억 달러가 많은 285억 달러 흑자 기록
  - 생산 및 투자 : 8월 산업생산규모<sup>1)</sup> 증가폭은 10.4%로 전월대비 0.7%p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2013년 1~8월까지 전국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한 26조 2,578억 위안을 기록
  - 소비 : 8월 중국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1조 8,886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해 올 들어 최고기록을 세워,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
- 중국은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내수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8월 신규취업자수, 11개월 만에 최대

-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는 서비스업,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43.2만 명을 기록
  - 고용지표 동향 : 8월중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3.2만 명 증가하여 11개월 만에 40만 명대를 기록. 15세 이상 고용률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산업별 : 제조업의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만 명 늘어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4월 16.5만, 5월 10.5만, 6월 9.6만, 7월 5.3만 명). 서비스업의 신규취업자는 보건·복지(17.5만 명), 숙박·음식(9.6만 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7월 28.3만 명에서 8월 38.5만 명으로 증가
  - 연령별 : 청년층(15~29세)의 신규취업자가 6.0만 명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규취업자가 47.0만 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
- 전체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의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1) 연간 수입규모 2,000만 위안 이상의 일정규모를 기준함

□ 휴먼터치를 통한 인사관리<sup>2)</sup>

- 직원들을 어떻게 물리적·심리적으로 ‘터치’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인사관리의 최대 화두
  - ‘휴먼터치’는 직원들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접촉을 의미하며, ‘인간미’와 유사한 의미
  
- 기업 인사관리와 관련된 휴먼터치는 물리적 터치, 대화에 의한 터치, 심리적 터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악수, 건배 등 물리적인 터치가 마음의 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 접촉이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세 가지 휴먼터치 방식을 적절히 배합해 사용할 필요성이 증대

< 휴먼터치의 세 가지 유형 >

|                  | 내 용  |
|------------------|--|
| <b>물리적 터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터치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격려의 어깨 두드림’, ‘악수’, ‘회식에서의 건배’ 등이 해당</li> <li>• 기업이 물리적 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li> <li>• 다만 많은 기업들이 부적절한 물리적 터치의 일종인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li> </ul>  |
| <b>대화에 의한 터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에 의한 터치는 시선 맞춤, 경청, 명확한 메시지 전달, 손동작이나 몸짓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메시지의 활용을 통해 발생</li> <li>• 관리자들은 하루의 70% 정도를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부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하들에 대한 관리자의 영향력은 달라짐</li> <li>• 기업들은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하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직원들의 동기부여 강화에 주목하고 있음</li> </ul> |
| <b>심리적 터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는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만족시키면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li> <li>• 아무리 능력 있는 직원이라도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이며 이직할 가능성이 높음</li> <li>• 과거 기업들은 직원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영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li> </ul>                                    |

2) ‘이야기하고 위로하고...휴먼터치가 최고의 인사관리’(동아비즈니스리뷰, 2013.09.12)를 요약 정리함.

□ 은퇴자 빛내 치킨집, 경제 부담으로<sup>3)</sup>

- 한국의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너도나도 빛을 내 치킨집 등 외식업에 뛰어들어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
  -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사원을 50대에 해고하는 반면 연금 체계는 열악해 기업에서 밀려난 베이비부머 가운데 상당수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킨·피자집을 열고 있다고 소개
  -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는 한국이 12개로 미국의 6배, 일본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치킨집의 경우 지난 10년간 세 배로 늘어났다고 전함
  - 소비자의 외식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 음식점들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빛을 내 탄생하는 것들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막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
  -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36%로 미국의 103%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140%)과 비슷한 수준

□ 아이비리그의 굴욕<sup>4)</sup>

-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만을 따져 대학 순위를 매긴 결과 하버드·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육·해군사관학교 및 소규모 대학에 밀릴 것으로 나타남
  - 美 연봉 통계분석업체인 페이스케일이 美대학 1,000여 곳의 졸업생 140만 명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대학 순위를 매긴 결과, 졸업생들의 취업 첫해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군사관학교가 7만7,100달러(약 8,370만 원)로 1위에 올랐음
  - 2위는 육군사관학교(7만4,000달러), 3위는 하버드칼리지(7만3,300달러), 4위는 MIT(6만8,600달러), 5위는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 6만8,400달러)
  - 반면 동부의 전통적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의 성적은 저조.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스탠퍼드, 시카고 등은 5위권에 이름도 올리지 못함
  - 중견 직장인의 연봉을 기준했을 때도 아이비리그는 여전히 저조

---

3) '은퇴자 빛내 치킨집 ... 경제 부담으로'(서울경제, 2013.9.16)를 요약 정리함

4) '아이비리그의 굴욕'(서울경제, 2013.9.16)를 요약 정리함

□ 미래에 사라질 7가지<sup>5)</sup>

○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가 예측한 '2030년 사라질 7가지'를 소개

- ① 언어 : 세계화에 따른 세계 언어의 등장, 실시간 모바일 통번역 장치의 대중화로 현존하는 6천여 개 언어 중 절반 가량인 3천여 개가 소멸
  - 세계 언어의 등장은 문화적 차이를 해소시키는 반면 다른 견해들을 관찰·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감퇴시켜 새로운 문화적 오해와 충돌을 야기할 우려
- ② 공교육 : 정부가 예산 문제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면서 공립학교가 민영화되고 교육 대기업이 탄생
  - 학생들을 나이별로 그룹화하는 현재의 공장형 대량생산 교육은 소멸되고 개별 학습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등장
- ③ 일자리 : 2030년까지 기존 일자리 중 절반 가량인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로봇, 자동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한 예로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택배·도로·항만·화물자동차·컨테이너 산업 등 현재 물류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타격
- ④ 상점 : 기존 오프라인 상점이 소멸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온라인으로만 구매 가능
  - 오프라인 매장은 신상품 홍보전시장, 증강현실 체험 전시장 등으로만 활용되고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 제품에 대해서만 운영
- ⑤ 의사 : 로봇 수술 시스템의 발달로 외과의사 없는 수술 시대가 열릴 것이며 인간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
  - 가정에서 정확하고 개인화된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일상적인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이유가 없어짐
- ⑥ 자유의지 : 기술 문명의 세계가 점점 더 지적 수준을 높여감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약
  - 우리의 과거 행동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다음 행동이나 결정, 심지어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
- ⑦ 익명성 :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익명의 시대가 소멸
  -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예측가능성이 상승하고 범죄율은 하락하는 한편,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을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새롭게 형성

---

5) '스마트폰 시대 가고 일자리 20억개 사라져'(한겨레, 2013.08.19), '슈퍼컴퓨터가 진단 처방하고 로봇이 수술한다'(한겨레, 2013.08.23) 참조

## □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프랑스와 한국은 너무 다르다. 프랑스의 법무부 장관이 독신 여성이었는데 출산 휴가를 떠났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휴가에서 복귀한 후 다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일부 잡지에서 잠시 가십거리가 되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한국의 상황은 프랑스와 전혀 다르다. 며칠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퇴하고 말았다. 당사자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떠밀려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왜 공직자에게 사생활이 왜 없을까?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줘야 오랫동안 은퇴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한국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얼굴이 다 알려져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인터넷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일반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유명인에게는 유명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도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토론 문화에 익숙하도록 길들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토론식 수업보다는 일방적 전달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미국에서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칭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이상한 아이로 찍혀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쓸림현상이 강하다. 집단에 속하면 편하게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개인적 의견과 다양성은 무시당하기 쉽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경제의 시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적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해지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꽃피게 되고, 머지않아 선진국 도약도 가능해진다.

### 無不敬(무불경)

세상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존경의 대상이다.

- 예기(禮記)